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한국불교, 불교다운가?

불교는 불교다워야 한다. 그것이 정범이다. 한국불교가 거듭 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나아가 인류의 삶과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불교는 불교다운가. 불교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

10명, 재가자 10명 등 20명에게 불교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방식은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형식을 택했다. 네 질문에 대한 20명의 견해와 종합분석을 차례로 정리했다.



◇한국불교의 불교다운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전국의 선원과 강원 등에서 수행정진하는 승가의 모습이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

● 한국불교, 과연 불교다운가
응답자 상당수가 "상당히 모호한 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불교다운 것이 무엇이나"고 되묻는 경우가 많았다. 모호한 질문을 던진 것은 '불교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통해 그 개념에 접근해보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또 특정한 시각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어떤 사상적·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상에 회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승가가 본연의 모습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의 한국불교 모습은 부처님 법에 비해 부족한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수행풍토, 승려 자질, 불교정신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문제는 대부분 승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세부적으로는 '승가가 본분을 잃고 있다' '승가가 정지판으로 변질됐다' '사명감이 없다' '스님들이 신도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등의 신랄한 비판

정체성 확립 가장 급한 문제

승가 본연의 모습 상실 아쉬워 우수한 가르침 사회회향도 미흡

● 시급히 고쳐야 할 한국불교 문제점은?
세부적으로는 의견이 다양했다. 승려 자질, 수행풍토, 지계정신 부족, 승·재가 교육, 문중·파벌주의, 승·속간 괴리감, 승가 권위주의, 물질만능주의, 기복신앙 등 불교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대부분 꼽혔다.

이 많았다. 이런 요인들이 바로 수행풍토를 확립하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행풍토와 승려자질 문제를 거론한 사람 가운데 스님이 재가자보다 두 배 가량 많아 승가 스스로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질만능주의가 승가에 파고들고 있다는 점도 많이 지적됐다. 선거과정에서 금

"불교답지 않다" 다수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 20명의 진단

<도움 말씀 주신 분들(승·재가 가나다순)>

| | |
|------------------|-------------------|
| 법타(은혜사 주지) | 김동훈(경북불교 운영위원장) |
| 본각(중앙승가대 교수) | 송도근(건교부 불자회장) |
| 성운(은평노인복지관장) | 왕선자(불교여성개발원 이사) |
| 지암(나주 사암연 회장) | 윤창화(민족사 대표) |
| 지홍(조계사 주지) | 윤전수(불교아카데미 이사장) |
| 철우(파계사 영산율원장) | 이만(동국대 교수) |
| 청화(실천승가회 상임고문) | 임원숙(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
| 해월(동화사 강주) | 정상욱(대한불교청년회장) |
| 현각(조계종 법규위원회 위원) | 최명준(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
| 해원(조계종 중앙총회의원) | 황진수(한성대 교수) |

원이 판을 치고, 또 이로 인해 승가 내부가 분열과 타락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불교가 정범의 불교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수행정신 회복, 승려자질 향상을 핵심 요건으로 제시한 응답자가 많았다. 그러

삼아서는 안된다는 뜻"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어떤 응답자는 "원칙을 지켜 불교가 바로 설 수 있으며, 그것이 곧 불교의 이념"이라고 했다.

"불교에 대한 몰이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요인들이 제시됐음을 알 수 있다.

● 한국불교 속에 불교다운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한 응답자는 "한국에도 탁당한 스님 같은 분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말은 한국불교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웅변한다. 말없이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의 모습, 응답자의 3분의2 이상이 선원과 강원, 그리고 수행자를 꼽았다. 이들에게서 한국불교의 희망을 보았고, 또 이들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존재가치와 역사를 잇는 자존심이라고 했다.

이와 비슷한 대답도 많았다. '제도권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불자들' '불우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스님들' 이 그렇다는 것이다. 사회참여 속에서 '불교다운 불교'를 느꼈다는 응답도 많았다. 사회복지, 환경, 사회문제 등에서 불교가 제 목소리를 낼 때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도법, 수행, 지출스님의 말씀은 고행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의 모습'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부처님 오신 날 거리에 달린 '은은한 등불'을 보며 이 땅에 불교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다"는 답변도 있었다.

● 불교다워야 불교가 산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 마디로 '불교답게 불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은 '부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응답자들이 강하게 지적했듯이 불교가 탁월한 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불교계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제시한 견해가 불교계 전체의 의견일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교다운 불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 정범의 당간을 우뚝 세우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 응답자는 이렇게 말했다. "불교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은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명력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한명우·여수령 기자

'부처님 법' 대로 살때 존경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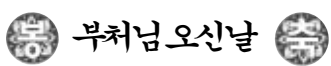
수행정신 회복·승려 자질 향상 승가회합·교단민주화 등 서둘 때

나 이보다 더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 것은 '불교 정체성 확립'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불교가 제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 응답자는 "불교 정체성 확립은 불교가 무엇을 하더라도 불교의 근본이념 구현을 목적으로 할 때 가능하다"며 "불교를 그늘로 삼아 교육이나 사회복지 등의 모든 행위를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승단 내부 문제는 물론 사회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수행체계 확립, 승가 회합, 교단 민주화, 지계정신 확립, 인재양성시스템 확보, 승가교육, 시대에 맞는 포교, 승려 노후복지 확립, 도덕성 회복 등이 필요요건으로 제시됐다.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점으로 거론된 항목들과 비교해 보다 구



"부처님의 말씀이 불교TV안에 있습니다"

- SkyLife와 함께하는 불교TV시청 캠페인 -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통해 산간벽지의 난시청지역에도 부처님의 법음을 전합니다

SkyLife란?

국내 유일의 다채널 디지털위성방송으로 스카이라이프 수신기만 갖추시면 전국 어디서나 종교(불교TV 등), 영화, 음악, 청소년, 여성, 스포츠, 뉴스 등 150여개 다채널을 고화질, 고음질로 시청하실 수 있는 고품질의 방송서비스입니다

| 패키지명/채널명 | 채널수 | 채널구성 |
|-----------|---------------------------------|---|
| SkyFamily | 112 채널 (불교TV 포함) | 일반채널: 불교TV, KBS1, KBS2, EBS, 홈쇼핑 등 영화 및 드라마: OCN, MGM, 드라마 3개 포함 12개채널 스포츠: KBS, MBC-ESPN, SBS, SBS골프 등 5개채널 증권 및 뉴스: CNN, HNK, YTN, 한경외우 등 어린이: 대교, 재능스스로 / 디즈니, 니켈로디언(원어방송) |
| EDU 1,2,3 | 초/중/고등학생들의 내신성적 향상과 수험생을 위한 채널 | |
| SKY수능1,2 |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위한 채널(점시타고 대학가자!) | |

| 부처님 오신 날 맞이 가입혜택 | |
|--|--|
| ■ 장비용: 3,660원 × 24개월 (24개월 의무가입) | |
| ■ 월 수신료: 12,600원 (1년간 30%할인가) / 12개월 의무시청 (SkyFamily기준) | |
| ■ 납부방법: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월 장비용 + 수신료 합산 청구) | |
| ■ 특전: 1개월 수신료 및 설치비, 가입비 면제 (단, 가입조건은 월별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